KoreaDaily
WWW.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미디어 정보 포털
THE MOST INFLUENTIAL KOREAN MEDIA IN AMERICA

기사입력: 03/13/2014 22:19

인쇄하기

UCLA-USC 한국학연구소 교류사업

USC와 UCLA 한국학연구소가 하나로 뭉쳤다. 13일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장이 USC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근대사와 현대사를 넘나들며 강연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USC 한국학연구소(USCKSI · 소장 데이비드 강)가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로 진행중인 유튜브 한국학 특강 시리즈에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던컨 소장은 13일 USC 갤런 센터에서 진행된 교양 강좌인 동아시아 현대사(EASC 150G)에 특별 강사로 초청됐다.

이날 던컨 소장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체성과 독특한 역사를 소개했다. 50여 명의 재학생 등이 참석한 이날 특강은 주제를 벗어나 광범위한 한국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단군신화로부터 이어진 단일민족사상이 21세기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난의 역사를 겪어낸 한민족이 독도 등 한 · 일 역사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등에 대한 열린 강의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던컨 소장은 "조선시대 신흥 사대부나 유교 등을 논하기엔 학생들이 지루할 것 같아, 고민 좀 했다(웃음). 짧은 시간에 한국을 설명하는 건 참 어렵다"며 "'우린 다르다'면서도 '뭉쳐야 산다'고 하고, 끔찍이 위계질서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한국의 특유의 감성을 학생들이 즐겁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에 따르면 UCLA 교수가 유튜브 특강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던컨 소장의 특강이 매우 유익했다는 USC 2학년 애비 슬로벡(19)은 "한국만의 개성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 특강 영상은 2~3주 후, 인터넷(www.youtube.com/user/USCKSI)에 공개될 예정이다.

구혜영 기자